

2018년 11월 8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중간선거 결과에 환호하며 상승 기술주, 제약 바이오 규제 완화 기대감 높아지며 상승 주도

### 미 중간선거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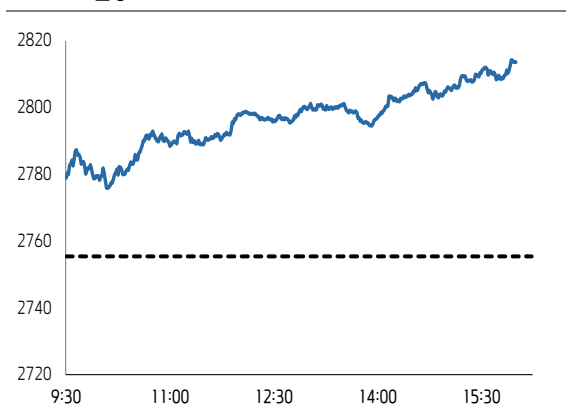
미 증시는 하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술주가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주도. 특히 하원의 의회 권력인 예산안 편성과 소환권을 이용해 트럼프의 일방적인 정책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다우 +2.13%, 나스닥 +2.64%, S&P500 +2.12%, 러셀 2000 +1.67%)

중요했던 미국 중간선거가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한 가운데 막을 내림. 주목할 부분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점. 하원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행정부 각료들에 대한 소환권을 가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던 무역분쟁 등 외교 정책과 여러 경제정책 등 행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보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됨. 물론 민주당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이 완전 해소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그렇지만, 2년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의 일방적인 행보를 제어해 미-중 무역분쟁 속도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한편, 인프라 투자 등은 민주당도 반대를 하지 않고 있음. 다만, 논란이 일고 있는 멕시코 장벽등을 제외 한다면 트럼프와 협력도 예상되는 지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 "무역과 인프라투자, 약가 인하 정책등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 한 점도 주목

이를 감안, 달러화는 무역분쟁 완화 및 미 의회 교착상태로 인해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력을 언급한 이후 달러 약세폭 축소. 미국 국채금리는 채권발행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국채금리 하향 안정이 기대. 한편, 달러 약세는 상품시장과 신흥국 주식시장에 우호적.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또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이러한 변화 요인은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긍정적이며 향후 연말 랠리에 대한 필요조건으로는 충분하다는 판단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78.69	-0.52	홍콩항셱	26,147.69	+0.10
KOSDAQ	682.37	-1.33	영국	7,117.28	+1.09
DOW	26,180.30	+2.13	독일	11,579.10	+0.83
NASDAQ	7,570.75	+2.64	프랑스	5,137.94	+1.24
S&P 500	2,813.72	+2.11	스페인	9,167.90	+1.99
상하이종합	2,641.34	-0.68	그리스	640.75	+1.73
일본	22,085.80	-0.28	이탈리아	19,540.94	+1.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기술주, 제약 바이오 상승 주도

아마존(+6.86%)과 알파벳(+3.62%)은 중간선거 결과로 반독점 규제 가능성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했다. 특히 아마존은 판매된 식료품의 배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었다면서 향후 관련 사업부문의 증가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이 컸다. 마이크로소프트(+2.84%), 캐터필라(+4.46%), 3M(+2.99%) 등은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한편, 길리어드사이언스(+3.03%), 암젠(+3.60%), 바이오젠(+3.51%) 등 바이오 업종과 에브비(+3.94%), 화이저(+3.23%), 일라이릴리(+3.61%) 등 제약주, 유나이티드 헬스(+4.21%), 에트나(+6.59%) 등 헬스케어 업종은 약가인하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의회 권력이 분열되어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휴마나(+6.68%)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중 하나였다. 반면, JP모건(+1.72%), 웰스파고(+0.04%)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가능성 제기로 보험권 혼조세를 보였다. 마이클 코어스(-14.62%)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63%	대형 가치주 ETF	+1.40%
에너지섹터 ETF	+0.95%	중형 가치주 ETF	+1.23%
소매업체 ETF	+0.97%	소형 가치주 ETF	+1.20%
금융섹터 ETF	+1.30%	배당주 ETF	+0.83%
기술섹터 ETF	+2.92%	변동성 ETF	-7.1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94%	대형 성장주 ETF	+2.59%
인터넷업체 ETF	+3.08%	중형 성장주 ETF	+2.04%
리츠업체 ETF	+1.13%	소형 성장주 ETF	+2.19%
주택건설업체 ETF	+0.51%	신흥국 고배당 ETF	+1.94%
바이오섹터 ETF	+2.33%	신흥국 저변동성 ETF	+1.35%
헬스케어 ETF	+2.94%	하이일드 ETF	+0.48%
곡물 ETF	+0.03%	물가연동채 ETF	+0.07%
반도체 ETF	+1.23%	Long/short ETF	-0.3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19.00	+1.61%	+4.35%	-6.66%
소재	350.54	+1.90%	+6.65%	+3.06%
산업재	615.89	+1.68%	+4.83%	-2.63%
경기소비재	883.91	+3.12%	+6.24%	+2.54%
필수소비재	581.12	+0.56%	+2.55%	+5.83%
헬스케어	1,078.14	+2.94%	+5.01%	+1.03%
금융	452.25	+1.34%	+3.76%	+0.06%
IT	1,247.05	+2.87%	+2.58%	+2.17%
커뮤니케이션	153.20	+1.94%	+1.54%	+1.94%
유틸리티	278.38	+1.08%	+2.20%	+1.59%
부동산	204.11	+1.14%	+2.90%	+3.8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선물 동향 주시

MSCI 한국 지수는 1.47% MSCI 신흥 지수도 1.88%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4,330 계약)에 힘입어 4.35pt 상승한 275.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5.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중간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대형 기술주와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규제 완화 및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등이 상승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미국채금리 또한 안정을 찾으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민주당과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이는 요인 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중국의 10 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의 대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 이후 중국 수출 감소가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수출이 지난달 전년 대비 14.5% 증가에서 관세 발효 여파로 전년 대비 11.0%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지표 결과가 한국 증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오늘은 옵션만기일이라는 점을 감안 외국인의 선물 동향 또한 주목된다. 시장일부에서는 매도 우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수급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이후 중국 수출입 통계 및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른 수급적인 이슈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유로존 소매판매 예상 하회

유로존 9 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다. 이는 지난달 발표(mom +0.3%)와 시장 전망치(mom +0.1%)를 하회한 수치다. 나라별로 보면 독일(mom +0.1%), 이탈리아(mom +0.3%), 스페인(mom +0.6%)등은 증가 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EIA 의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 발표 이후 하락 전환 했다. EIA 는 지난 주 원유 재고가 예상치(+243.3 만 배럴) 보다 많은 578.3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 했다. 가솔린 재고 또한 예상치(-227.6 만 배럴)와 달리 185.2 만 배럴 증가 했다고 발표된 점도 부담이었다. 다만, 정제유는 예상치(-262.9 만 배럴) 보다 많은 346.5 만 배럴 감소 했다.

달러화는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자 격화된 무역분쟁이 완화되거나 속도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12 월 FOMC 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약세 요인중 하나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메이 총리와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브렉시트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발표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유로화가 예상을 하회한 소매판매를 발표한 점, 이탈리아의 사회안전강화법안이 이탈리아 상원을 통과한 점은 부담을 주며 유로화 강세폭이 축소되자 달러화는 약세폭이 축소 되었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의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트럼프 정책이 속도조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특히 트럼프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채 발행 규모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3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39 배) 보다 낮은 2.06 배에 그치자 금리는 상승 전환 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은 제한 되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 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0.59% 상승 했으며 철근도 0.4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1.67	-0.87	-5.57	Dollar Index	96.105	-0.22	-1.05
브렌트유	72.07	-0.08	-3.96	EUR/USD	1.144	+0.11	+1.13
금	1,228.70	+0.20	+1.13	USD/JPY	113.53	+0.09	+0.52
은	14.569	+0.48	+2.01	GBP/USD	1.3137	+0.29	+2.91
알루미늄	1,985.50	+1.79	+1.64	USD/CHF	1.0017	-0.08	-0.67
전기동	6,153.00	-0.08	+2.69	AUD/USD	0.728	+0.46	+2.93
아연	2,455.00	-1.84	-1.52	USD/CAD	1.3111	-0.10	-0.35
옥수수	372.25	-0.27	+2.48	USD/BRL	3.7378	-0.70	+1.05
밀	510.25	-0.34	+1.95	USD/CNH	6.9147	-0.13	-0.86
대두	879.50	-0.54	+3.26	USD/KRW	1123.30	-0.04	-1.43
커피	115.60	+2.08	+2.57	USD/KRW NDF1M	1115.60	-0.49	-2.2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230	+0.23	+8.64	스페인	1.600	+1.90	+5.50
한국	2.250	-4.20	+0.50	포르투갈	1.924	+2.90	+5.50
일본	0.123	-0.80	-0.40	그리스	4.286	-2.80	+7.30
독일	0.447	+1.30	+6.20	이탈리아	3.335	-5.90	-9.00